

당신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제자입니까?

“빌립보서”

이름 : _____ 소속 : _____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행복에 가득 차서 보낸 편지다. 그 행복은 전염성이 강하다. 몇 절만 읽어도 금세 그 기쁨이 전해지기 시작한다. 춤을 추는 듯한 단어와 기쁨의 탄성은 곧장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가 사전을 뒤적거려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단어가 아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 가운데 책을 보고 익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삶의 특성을 익히려면 도제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하다. 수년간 충실한 훈련을 통해 몸에 익힌 것을 자신의 모든 행실로 보여주는 사람에게 직접 배워야 한다. 물론 설명을 듣기도 하겠지만, 제자는 주로 “스승”과 날마다 친밀하게 지내면서, 기능을 배우고 타이밍과 리듬과 “터치” 같은 미묘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법을 익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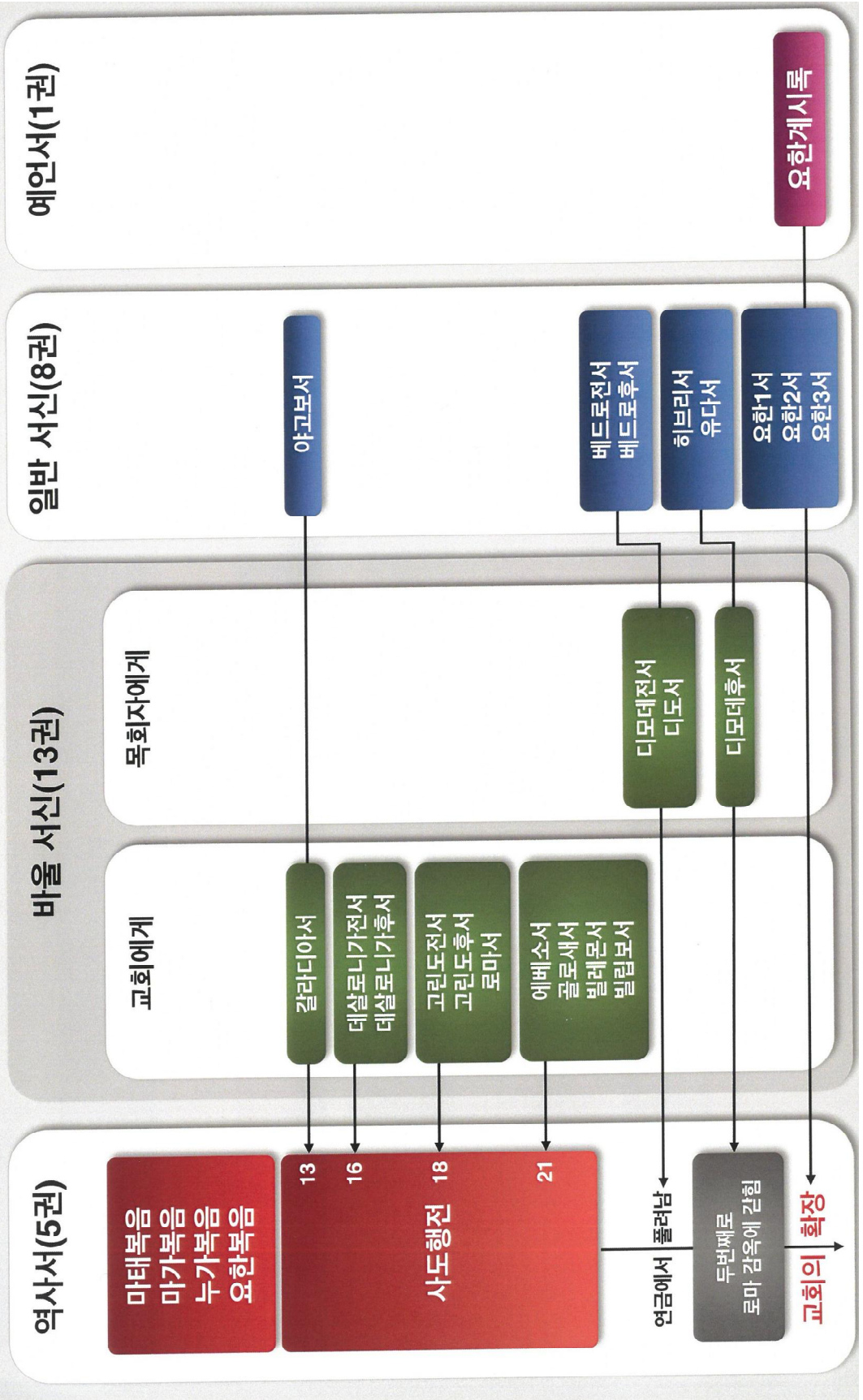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다 보면, 위에서 말한 스승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바울은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거나, 행복해지는 법을 말해 주지 않는다. 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행복하다는 사실이다. 그 기쁨은 그가 처한 상황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고, 그의 활동은 경쟁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섬기며 스무 해가 넘도록 혹독한 여행을 한 끝에 지쳐 있었고, 어느 정도 위안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내면으로 경험한 메시아 예수의 생명에 건줄 때, 상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역사의 특정 시점에 한 번 나타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타나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흘러들고, 계속해서 사방으로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래서 그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이처럼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기쁨은 충만한 생명이며, 어느 한 사람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는, 넘쳐흐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메시지 성경 중에서)

우리에게도 ‘행복’은 스승과의 삶과 훈련을 통해서 익히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 스승은 바로 말씀과 예수그리스도이시다. 지친 삶에서 느끼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넘쳐흐르는”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보자!

신약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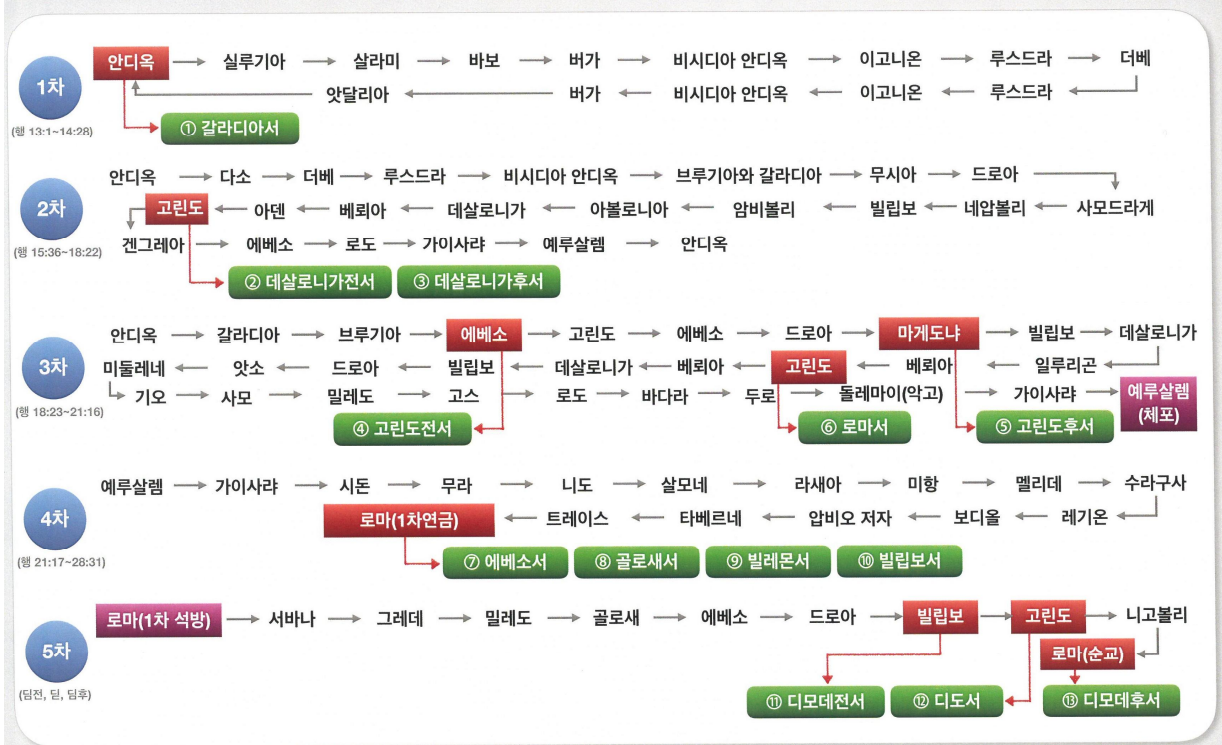
● 신약 성경의 상관관계 : 시대순으로 본 신약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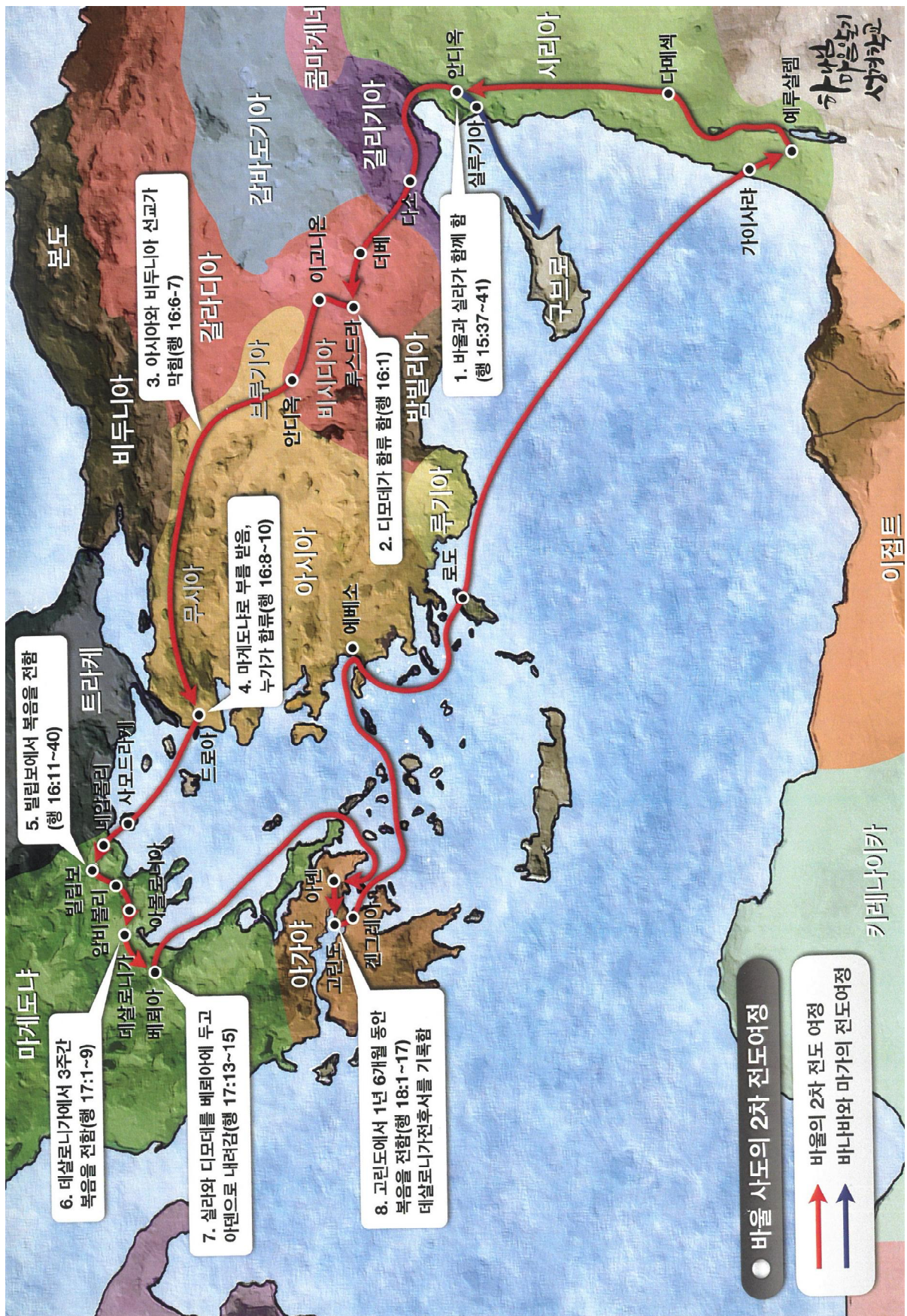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학교



● 바울의 전도여행과 바울 서신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학교





왜? Deep & Wide

- 말씀을 깊이 묵상 :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지 않는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내 입술로 고백되어야 한다.
- 말씀을 넓게 적용 :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적용. 가정, 일터, 교회, 여러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됨.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깊이 볼 수 있고, 넓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빌립보서 개관

- 위치 : 빌립보서는 서신서이고, 교회에게 쓴 바울서신이다. (신약 27 : 역사서5+바울서신13+일반서신8+예언서1)
저자는 바울이고, 빌립보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
- 언제 : 4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서 쓰여짐 / 옥중서신(가택연금)
- 방문 : 2차 전도여행 때 처음 방문 (사도행전 16~18장에 기록)

빌립보서 배경 “3가지 상황”**첫 번째 상황 : 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서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지만, 성령이 막는 것을 경험했고,
이어서 어느 날 밤 꿈에서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청원하는 환상을 봄.
- 바울은 마게도나에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소명(부르심)으로 확신하고 드로아 항구를 떠나 빌립보에 당도

“자신의 철저한 계획을 내려놓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한다.

자신의 계획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된 일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 상황 : 교회의 시작!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환경과 상황이 열린다.

- 빌립보는 유대 회당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도처소를 찾아다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인 여자들이 안식일에 기도 모임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강가로 복음을 전하러 감. 자주 빛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남.(재력을 갖춘 무역상)
-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녀와 집안 식구들이 함께 세례 받음.
-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묵게 해줌(16:15), 그녀의 집이 빌립보교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 됨(16:40)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환경을 열어주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다!

한 사람에게 찾아온 복음의 은혜가 교회의 역사로 이어진다!”

세 번째 상황 : 어려움에도 복음은 지속된다!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겨라.

- 길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
- 복음을 전하다 문제가 생김 : 당시 정치가들과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무녀에게 점을 쳤는데, 이제 힘이 사라지고 평범한 여자 노예가 되니깐 돈을 주고 산 공동 소유자들이 격분 /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심하게 매질하고 감옥에 가둠.
- 그 상황에서 바울/실라는 찬양과 기도를 함. 도망가기 위한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구함.
- 그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만나게 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4:6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4:7

빌립보 도시의 특징

- 로마의 식민지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많았고 이들은 로마 사람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 바울은 식민지에 살지만 로마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기록목적

-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 감옥 속에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
- 분열하는 모습을 보인 빌립보 교회의 연합을 위해

본문 깊이 보기

1장 1~6절

1:1~2 안부인사로 시작 / 바울과 디모데 - 자신들을 '중'으로 표현

- 중(1) 둘로스/노예 : 당시 로마시대에 '중'은 전혀 자유가 없는 노예. 바울은 인간취급 받지 못했던 노예와 자신을 동일시 하지만, 그는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함.
-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것.
-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 : 주님의 낮아짐,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낮아짐. 빌립보 공동체가 품어야 할 모습.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느나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자세가 달라진다.
다른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주장하소서.”

- 성도(1) : 따로 불러낸 사람들, 구별해 낸 사람들, 따로 떼어 낸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모든 성도는 saint이다. 부르심.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심. 어떤 복을 주실까?
- 은혜와 평강을 주심(2) : 은혜(카리스), 평강(에이레네) : 카리스가 에이레네의 근원 즉 평강은 은혜로부터 나옴.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의 결과.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 내면이 변화됨 / 먼저 은혜를 구해야 한다 / 가장 큰 축복

1:3~4 빌립보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함.

- 어떤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표현
-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까?
-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마다, 4절에 간구할 때 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감사하고 기뻐함.
- '생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기억과 언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기도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 간구는 일반적인 기도를 뜻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청원기도, 중보기도를 뜻함.
- 때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으로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 의무감을 넘어 기쁨으로 나아감.

1:5~6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 왜 바울이 기도할 때 마다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
- 첫날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림.
그때부터 빌립보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참여한 것.
- 코이노니아(5) 참여하다 : 교제, 동역이라고 번역하는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
-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 성경적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
- 바로 동역할 때,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찾아온다.
-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 이 같은 기쁨이 오는 것.
- 6절, 선한 일과 착한 일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코이노니아) 복음 안에서 영적인 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 그 일을 누가 시켰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선한 일로 나아간 것 /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 하신다.

그러나 그 구원의 과정에 우리가 함께 파트너로 동참해야 한다. 그 때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다!”

본문읽기

개역개정

- (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말성경

- (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 (3)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4)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 (5)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 (6)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 (7)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8)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 (9)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 (10)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 (11)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1) Paul and Timothy, servants of Christ Jesus, To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at Philippi, together with the overseers and deacons:
- (2)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 (3)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 (4) In all my prayers for all of you, I always pray with joy
- (5)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 (6) being confident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 (7) It is right for me to feel this way about all of you, since I have you in my heart; for whether I am in chains or defending and confirming the gospel, all of you share in God's grace with me.
- (8) God can testify how I long for all of you with the affection of Christ Jesus.
- (9) And this is my prayer: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depth of insight,
- (10) so that you may be able to discern what is best and may be pure and blameless until the day of Christ,
- (11)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메시지

(1-6)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를 따르는 빌립보의 모든 이들과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 탄성은 기도로 이어져,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믿고 전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해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7-11)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분명한 현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재판을 받을 때나, 잠시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결같이 나와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따금 나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이나 절절히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1. 문단 나누기

(각 본문을 3회 이상 읽고 문단을 나누십시오. 이를 통해 파악한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서, 한두 절을 묵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2. 하나님 찾기

(하나님[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을 3회 이상 읽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정리하십시오. 이를 묵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3. 강조점 찾기

(반복·비슷·반대·대조·연결사·기타강조 등을 찾은 후 중심사상을 정리하십시오.)

4. 원리

(지금까지 본문을 이해한 결과,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십시오.)

5. 오늘의 사명

(말씀 적용하기)

6. 기도노트

(1) 나

(2) 가정

(3) 공동체

본문 깊이 보기

1장 7~8절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

- 바울은 자신의 복음 때문에 투옥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동참하기에 감사.

바울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 1)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서로의 마음 안에 서로를 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2)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 세상일에 공동참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공동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 (7절 :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은혜(7) : 카리스 > 위임, ‘맡겨졌다’의 뜻 / 은혜 안에 소명(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다.
-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심.
- 의지와 순종이 생김 : 1)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와 순종 2)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겠다는 의지와 순종

1장 9~11절 바울의 기도

- 바울이 감사 기도에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 안에 내분이 있었다. 그렇기에 공동체 안에 구체적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길 원함.
- **지식** :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은 지식 /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 때 사랑이 풍성해진다.
- **충명** : 실제적인 지혜, 통찰력을 의미,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이 더 잘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상태를 고려해서 지혜롭게 표현함.
- 그렇게 사랑이 더 풍성해질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됨.
- 우리는 삶에서 분별해야 할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온다. 그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알게 됨.

빌립보교인들에게 왜 그런 분별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

- 첫 번째 : 10절, 진실하여 하물 없이 되기를 원하고, 즉 순결하고 흠이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
- 두 번째 :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 의의 열매 > 성령의 열매
의롭게 된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
- 그렇게 될 때 영적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 최종 목적 :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가장 먼저 나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가정과 자녀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길,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충명으로 가득 차서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그렇게 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의의 열매가 삶 속에 열려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쳐나기를...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1장 12~30절 바울의 투옥 이야기

- 12절, 자신은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자기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함.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한 진보가 나타났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혀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 그런데 바울은 투옥되어 고통당하는 어려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투옥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심을 보임.
바울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을 갖길 원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의 관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습관, 훈련을 성도들이 하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했는가,

이 비결을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에게 전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13절 : 시위대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 시위대는 황실 근위대 / 새로운 대상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함.
- 14절 : 새로운 전도자들이 생김.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됨.

1:15~18절 문제를 만나게 됨.

-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김.
- 18절 :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 하나님의 때에 다 밝혀질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불순한 동기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음.
분명히 현실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점점 더 오히려 단단해짐.

1:21~26절 바울이 고백하고 성도로써 가지는 소망은 무엇인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함.

- 감옥에 갇혀있고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자유로운 몸이었을 때와 똑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을 높이는 것이니, 그것이 유익하다!

- 첫 번째 : 내 삶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이므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유익하다는 말.
- 두 번째 : 오로지 그리스도가 나의 삶 자체를 주관하시므로,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라는 사실. 즉 어떤 상황이든 나의 삶의 주관자가 오직 주님이라는 뜻. 전적인 헌신!

1:27~30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빌립보 공동체가 실행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

- 첫째, 한 성령 안에 굳게 서는 것 / 한 마음(프뉴마 / 성령) 한 성령 안에 뭉쳐서 단단히 서는 것.
- 둘째, 한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 협력함으로 함께 그 싸움을 감당해나가는 것.
- 셋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면 수많은 반대와 고난을 만나게 됨.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의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다. (롬 8:18~30)

“고난 속에서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적인 신실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고난이 빚어내는 또 다른 은혜 안에 들어가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12)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9)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 무슨 일에도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말성경

(12)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13)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14)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5)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16)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17)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18)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19)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22)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3)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24)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26)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27)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 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28)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29)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다. (30)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12) Now I want you to know, brothers, that what has happened to me has really served to advance the gospel. (13) As a result, it has become clear throughout the whole palace guard and to everyone else that I am in chains for Christ. (14) Because of my chains, most of the brothers in the Lord have been encouraged to speak the word of God more courageously and fearlessly. (15) It is true that some preach Christ out of envy and rivalry, but others out of goodwill. (16) The latter do so in love, knowing that I am put here for the defense of the gospel. (17) The former preach Christ out of selfish ambition, not sincerely, supposing that they can stir up trouble for me while I am in chains. (18) But what does it matter?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n every way, whether from false motives or true, Christ is preached. And because of this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19) for I know that through your prayers and the help given by the Spirit of Jesus Christ, what has happened to me will turn out for my deliverance. (20) I eagerly expect and hope that I will in no way be ashamed, but will have sufficient courage so that now as always Christ will be exalt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21)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22) If I am to go on living in the body, this will mean fruitful labor for me. Yet what shall I choose? I do not know! (23) I am torn between the two: I desire to depart and be with Christ, which is better by far; (24) but it is more necessary for you that I remain in the body. (25) Convinced of this, I know that I will remain, and I will continue with all of you for your progress and joy in the faith, (26) so that through my being with you again your joy in Christ Jesus will overflow on account of me. (27) Whatever happens,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Then, whether I come and see you or only hear about you in my absence, I will know that you stand firm in one spirit, contending as one man for the faith of the gospel (28) without being frightened in any way by those who oppose you. This is a sign to them that they will be destroyed, but that you will be saved--and that by God. (29) For it has been granted to you on behalf of Christ not only to believe on him, but also to suffer for him, (30) since you are going through the same struggle you saw I had, and now hear that I still have.

메시지

(12-21) 친구 여러분, 내가 이곳에 갇힌 것이 본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음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메시지가 짓눌리기는 커녕,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내가 메시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곳의 모든 병사와 그 밖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이제는 저들도 그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자신들의 믿음을 전보다 더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이들은 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사람들의 주목을 한번 끌어 보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곳에서 메시지를 변호하고 있음을 알고는, 순수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를 도우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라지자, 이 일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탐욕스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들은 악한 동기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경쟁자로 여기고, 나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자신들의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악하든 분명치 않은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저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나는 일이 어찌 될지 알기에 계속해서 그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와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시려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더욱 정확하게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들은 내 입을 다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게 설교단을 마련해준 셈입니다. 나는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고, 죽어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지금의 삶과 훨씬 더 나은 삶! 어느 쪽이든 내게는 유익입니다.

(22-30)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만 육신의 장막을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있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더 낫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삶에서 여러분의 성장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여러분의 동료로 여러분 곁에 좀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다시 방문하는 날, 멋진 재회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서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내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 달려져서는 안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모든 멀리서 소식만 전해 듣 간에, 여러분의 행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 비전을 품고 한마음으로 굳게 서서, 사람들이 메시지, 곧 복된 소식을 신뢰하도록 분투하십시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몸을 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용기와 하나됨은 적들에게 분명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것은 패배요, 여러분이 직면한 것은 승리입니다. 이 둘은 모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신뢰만큼이나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 왔는지 보았고, 지금도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문단 나누기

(각 본문을 3회 이상 읽고 문단을 나누십시오. 이를 통해 파악한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서, 한두 절을 묵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2. 하나님 찾기

(하나님[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을 3회 이상 읽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정리하십시오. 이를 묵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3. 강조점 찾기

(반복·비슷·반대·대조·연결사·기타강조 등을 찾은 후 중심사상을 정리하십시오.)

4. 원리

(지금까지 본문을 이해한 결과,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십시오.)

5. 오늘의 사명

(말씀 적용하기)

6. 기도노트

(1) 나

(2) 가정

(3) 공동체

본문 깊이 보기

2장 1~4절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

- 1:27~30은 공동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논의했다면, 2:1~4는 공동체 내부 관계에 집중
- 두 번째 명령문 :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4절)를 중심으로 문장 구성

“기쁨을 넘치게 하기 위해 공동체가 해야 할 일 : ‘하나가 되는 것’ > 하나가 되기 위해 한 가지에 집중하자!”

- (2절) 한 가지 : 같은 마음을 지니는 것 /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 (1절) ‘무엇이 있거든’ 원어에는 이미 그들 안에 있다.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와 금홀과 자비**
-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에 그 경험들을 근거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욱 성장하길!
- **그리스도 안에 권면 : 파라클레시스** > 위로, 격려 /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

“기쁨 일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은혜이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그 특권을 통해 주님은 성도의 어떤 어려움에도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 **성령의 교제 : 코이노니아** > 성령으로 그리스도인들 간의 친밀한 교제와 동역이 이루어진다. 공동체에 주시는 선물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이전까지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도 형제자매처럼 지낼 수 있게 된 것!
- **금홀 : 동정심, 내장** > 이 당시에 인간의 감정이 내장에 있다고 믿었음. 감정적으로 가깝게 느껴지기에 친밀함으로 가
까워짐.
금홀과 동정심이 있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이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 이런 경험들을 근거로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권면 > 하나 됨!

2:3~4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

그 한 가지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 다툼, 경쟁심, 이기심,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일들, 육체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허영 : 독사 > 헛된 영광, 평판 / 자신의 평판과 명예를 위해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 4절 원문 : 다른 사람들의 일을 먼저 돌아보라고 기록 / 주님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뒤로하고 먼저 우리를 돌아보심.

5절 :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됨을 품을 수 있다!”

“예수님의 생각과 결단과 행동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2:6~8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6절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는 행동

-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높아지는 것!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낮아지심. 하나님과 본질 상 같은 분이셨던 분.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지위와 능력을 지님.
- 그 유익과 자신의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다.

“자신의 지위, 특권, 권리, 유익만 주장하는 곳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7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자기를 비운 것’, 종과 노예의 형체로 나타나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 첫째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심.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심.
-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자신을 드러내심 : 십자가형 :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결단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마음과 결단입니다.”

2:9~11 낮아지는 삶을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높이심

- 9절부터 주체는 하나님 :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높이주신다.
-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2:12~18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 12절 : 그러므로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워내신 것처럼,
-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 삶의 구원을 의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
-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 두렵고 떨림은 구원의 은혜가 절대로 가볍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말. 값싼 구원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으로 시작된 구원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라!
- 13절 :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
-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강한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
- 14절 : 원망 > 시비 : 모든 시비의 밑바닥에는 원망의 마음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끊임없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남을 보게 된다.
결국 가나안 1세대가 죽게 되는...
- 그렇기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광야와 고난의 인생길일 수 있지만, 원망과 시비 없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될 때, 15절 말씀처럼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될 것! 이 땅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빛의 자녀로 사용하신다!

- 16~18절 : 나의 달음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고가 지금의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분명 후회와 헛된 기쁨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결과가 아니라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목적을 둔다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19~30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

- 무거운 가르침을 끝낸 바울은 두 동역자의 여행 계획을 말한다. 바울의 목적은 단순히 여행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구체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것!
- 19절에서 30절까지 주 안에서가 3번 반복.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라는 관점으로 믿음의 동역자로 바라봤다. 그렇기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었고, 그 안에서 고난의 과정도 만나게 됨.
-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을 뻔 했고, 디모데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 만남.
-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한 동역자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이다.

본문읽기

개역개정

-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말성경

-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 (2)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 (3)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 (4)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 (5)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 (6)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 (7)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 (8)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 (10)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1)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if any comfort from his love, if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if any tenderness and compassion,
- (2) then make my joy complete by being like-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one in spirit and purpose.
- (3)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but in humility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 (4) Each of you should look not only to your own interests, but also to the interests of others.
- (5)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 (6)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 (7)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 (8)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even death on a cross!
- (9)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an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 (10)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 (11)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메시지

(1-4)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 두고 다른 사람이 잘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5-11)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받아 본적 없는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오래전에 죽어 땅에 묻힌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이심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9)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1)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3)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6)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29)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우리말성경

(12)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13)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4)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15) 이는 여러분이 흠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6)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게 달음질하거나 헛되게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7)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18)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19)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에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20)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21)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2) 여러분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 (23)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그를 보내고 싶습니다. (24) 그리고 나 자신도 곧 가게 되리라고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25)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 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6)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며 또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 알고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7)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8)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다시 만나 봄으로 기뻐하고 나 또한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를 급히 보냈습니다. (29) 여러분은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아 주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30)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eyed--not only in my presence,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13)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14) Do everything without complaining or arguing, (15) so that you may become blameless and pure, children of God without fault in a crooked and depraved generation, in which you shine like stars in the universe (16) as you hold out the word of life--in order that I may boast on the day of Christ that I did not run or labor for nothing. (17) But even if I am being poured out like a drink offering on the sacrifice and service coming from your faith, I am glad and rejoice with all of you. (18) So you too should be glad and rejoice with me. (19) I hope in the Lord Jesus to send Timothy to you soon, that I also may be cheered when I receive news about you. (20) I have no one else like him, who takes a genuine interest in your welfare. (21) For everyone looks out for his own interests, not those of Jesus Christ. (22) But you know that Timothy has proved himself, because as a son with his father he has served with me in the work of the gospel. (23) I hope, therefore, to send him as soon as I see how things go with me. (24) And I am confident in the Lord that I myself will come soon. (25) But I think it is necessary to send back to you Epaphroditus, my brother, fellow worker and fellow soldier, who is also your messenger, whom you sent to take care of my needs. (26) For he longs for all of you and is distressed because you heard he was ill. (27) Indeed he was ill, and almost died. But God had mercy on him, and not on him only but also on me, to spare me sorrow upon sorrow. (28) Therefore I am all the more eager to send him, so that when you see him again you may be glad and I may have less anxiety. (29) Welcome him in the Lord with great joy, and honor men like him, (30) because he almost died for the work of Christ, risking his life to make up for the help you could not give me.

메시지

(12-18) 친구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해온 일을 계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살 때에, 여러분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아니, 한층 더 애쓰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십시오.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흠 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취 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나는 여러분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한 이모든 일이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처형당한다 해도,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믿음으로 바치는 제물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 기쁨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의 기쁨의 일부가 되어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미안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19-30) 나는 (예수의 계획을 따라) 조만간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소식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내 마음은 실로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내게는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충직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디모데는 진국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그는 내게 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내게 있을 일을 알게 되는 대로, 그를 보내려고 합니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라가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나의 좋은 벗이며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려고 합니다. 전에 여러분이 그를 보내어 나를 돕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그를 보내어 여러분을 돕게 하겠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몸시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그는 병이 나은 뒤로 더욱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마터면 그의 죽음이 그 무엇보다도 큰 슬픔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인 이유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의 강건하고 기운찬 모습을 다시 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할 것이며 나는 또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포옹으로 그를 성대히 맞아 주십시오! 그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시작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역이 생각나는지요? 그는 그 일을 마무리하느라 목숨까지 걸었고, 그 일을 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 했습니다.

1. 문단 나누기

(각 본문을 3회 이상 읽고 문단을 나누십시오. 이를 통해 파악한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서, 한두 절을 묵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2. 하나님 찾기

(하나님[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을 3회 이상 읽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정리하십시오. 이를 묵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3. 강조점 찾기

(반복·비슷·반대·대조·연결사·기타강조 등을 찾은 후 중심사상을 정리하십시오.)

4. 원리

(지금까지 본문을 이해한 결과,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십시오.)

5. 오늘의 사명

(말씀 적용하기)

6. 기도노트

(1) 나

(2) 가정

(3) 공동체

본문 깊이 보기

3장 1~3절 대적자들과 진정한 공동체

- ‘끝으로’(1) :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들으세요!”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짐.
-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한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1)
- 육체를 신뢰하면 기뻐할 수 없다. 율법에 의존하는 구원에는 기쁨이 없다.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던 실제적인 문제는?

- 잘못된 신학으로 위협했던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드러남(2) :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 그들을 “개들”, “행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3번이나 “삼가라”고 반복 바른 신앙을 갖는데 결정적인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 어떤 행위인가?

- 육체적 할례를 말하는 것 /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 이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그 언약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율법에서 명시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 왜 문제가 될까? 믿음이면 충분한데,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 보겠다는 생각!

“우리의 구원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 바울도 자신을 할례파라고 말함.(3) > 여기에서 말하는 할례파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함.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 첫 번째 :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봉사는 서비스, 즉 예배를 의미.
- 두 번째 :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함.
- 세 번째 :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 즉,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자랑

왜 이것이 중요할까? 당시 거짓교사들은 자랑의 근거를 자기 삶의 행위에 두었기 때문!

- 예를 들어서,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금식을 하루에 몇 번하고 기도를 몇 번한다.
드러나는 행동들이 자기 의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지나치면 자기 자랑이 되는 것
- 복음의 첫 번째 출발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6:14)

육신은 하나님의 영과 반대된다. 따라서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갈 5: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 5: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 5: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갈 5: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갈 5: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육신은 하나님과 성령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3장 4~7절 육체의 자랑

- 자신도 사실 육신을 의지하는데 선수였음을 밝힌다.
- 육신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따지자면, 자신이야말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뒤쳐질 것이 없다.

바울이 육신을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무엇일까?

-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조상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
- 두 번째는 자신이 성취해 낸 업적에 대해서 말한다.
- 그리고 열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교회의 핍박자이고, 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한다.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고,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완수하며 살았다는 것.

“그러나” 7절에서 가장 중요한 접속사> 가장 위대한 전환점

-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것!
- 율법을 지키지 못해 힘들어하다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난 것
- 예수를 만나고 나니 자신이 자랑했던 것, 확신했던 것,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해로 운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과 유익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해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장 8~11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

-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 동시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한다.
- 그가 유대인으로써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보니 배설물 밖에 안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

-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 즉,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실행하겠다는 결단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고, 고난에 동참하여 죽으심을 본받는 것!

(빌 3: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 부활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 즉,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단순히 어리석은 일 같고, 힘든 일 같지만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수 있고,
-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받아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 참여는 코이노니아를 의미 > 주님과 교제와 동역을 의미

부활의 능력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

- 첫 번째 :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요20:21)

“부활의 능력은 바로 평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걱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두 번째 :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10)

“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예수의 생명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3장 12~16절 꾀대를 향한 질주

-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는 바울이 과거에 받은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고백이다. (아직)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뒤의 것(과거)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

3장 17~21절 + 4장 1절 반도덕주의자들의 경계

-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는 자들인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교훈한다(17-21절).
- 반도덕주의자 : 이미 구원받았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믿는 자들!

본문읽기

개역개정

- (1)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 (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 (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우리말성경

- (1)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 (2)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 (3)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 (4)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5)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 중의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 (6)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 없는 사람입니다.
- (7)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 (8)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 (9)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난 의입니다.
-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 (1) Finally, my brothers, rejoice in the Lord! It is no trouble for me to write the same things to you again, and it is a safeguard for you.
- (2) Watch out for those dogs, those men who do evil, those mutilators of the flesh.
- (3) For it is we who are the circumcision, we who worship by the Spirit of God, who glory in Christ Jesus, and who put no confidence in the flesh--
- (4) though I myself have reasons for such confidence. If anyone else thinks he has reasons to put confidence in the flesh, I have more:
- (5) circumcised on the eighth day, of the people of Israel, of the tribe of Benjamin, a Hebrew of Hebrews; in regard to the law, a Pharisee;
- (6) as for zeal, persecuting the church; as for legalistic righteousness, faultless.
- (7) But whatever was to my profit I now consider loss for the sake of Christ.
- (8) What is more, I consider everything a loss compared to the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se sake I have lost all things. I consider them rubbish, that I may gain Christ
- (9) and be found in him, not having a righteousness of my own that comes from the law, but that which is through faith in Christ--the righteousness that comes from God and is by faith.
- (10)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s,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 (11) and so, somehow, to attain to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메시지

(1-6) 우리 소식은 이쯤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에 편지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나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 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적습니다.

짓는 개들, 곧 참견하기 좋아하는 종교인들,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자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온통 겉모습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수술하기 좋아하는 할레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사역을 부지런히 하고,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소리를 공중에 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자격 조건들을 내세운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태어나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고 독실하게 준수했고, 내 종교의 순수성을 열렬히 수호하면서,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낱알이 지켰습니다.

(7-11)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본문읽기

-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 (14)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 (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 (18)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 (19)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 (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 (2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말성경

- (12)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 (13)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 (1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꾀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 (15)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 (16)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 (17)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 (18)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 (19)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 (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 (21)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 (12)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all this, or have already been made perfect, but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 (13) Brothers, I do not consider myself yet to have taken hold of it.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is behind and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 (14)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 (15) All of us who are mature should take such a view of things. And if on some point you think differently, that too God will make clear to you.
- (16) Only let us live up to what we have already attained.
- (17) Join with others in following my example, brothers, and take note of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pattern we gave you.
- (18) For, as I have often told you before and now say again even with tears, many live as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 (19) Their destiny is destruction, their god is their stomach, and their glory is in their shame. Their mind is on earthly things.
- (20)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And we eagerly await a Savior from there, the Lord Jesus Christ,
- (21) who, by the power that enables him to bring everything under his control, will transform our lowly bodies so that they will be like his glorious body.

메시지

(12-16)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17-21)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기 바깥에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목표를 택하면서, 여러분을 그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솜씨로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그분 아래와 주위에 머물게 하시는데, 바로 그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1. 문단 나누기

(각 본문을 3회 이상 읽고 문단을 나누십시오. 이를 통해 파악한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서, 한두 절을 묵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2. 하나님 찾기

(하나님[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을 3회 이상 읽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정리하십시오. 이를 묵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3. 강조점 찾기

(반복·비슷·반대·대조·연결사·기타강조 등을 찾은 후 중심사상을 정리하십시오.)

4. 원리

(지금까지 본문을 이해한 결과,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십시오.)

5. 오늘의 사명

(말씀 적용하기)

6. 기도노트

(1) 나

(2) 가정

(3) 공동체

본문 깊이 보기

4장 2~3절 같은 마음

- 1절, 교회 안에 지도자들 간의 문제 발생 : 유오디아와 순두게 / 바울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음.
- 2절, '권한다'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 /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동일하게 권면!
- 좋은 관계란 문제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서로를 얼마나 이해해주고 희생하는가!에 따라 좋은 관계로 발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 첫째, 편을 만들거나 한쪽 편에만 서지 않는 것!

둘째,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할 것!”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였을까?

-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2) : ‘프로네인’동사를 사용
- 즉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같은 마음&생각을 하라는 것!
-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했던 그 방법을 따라야 두 여인도 문제를 극복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음.
- 예수님의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가지셨던 생각의 틀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4장 4~5절 기쁨과 관용

- 다시 한 번 기뻐하라고 권면(4) :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 감정이나 심리상태가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경험하는 기쁨!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5) : 관용은 남의 결점에 대해 넓은 마음을 품는 마음.
-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관용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없다.

4장 6~7절 기도와 평강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염려가 마음 속에 일어날 때 마다 즉각 기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 기도의 시작은 동시에 염려의 중단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세상과 다른 관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생기는 근원은 어디인가? “마음과 생각”

- 마음 / 카르디아 : 심장을 가리키는 단어, 이곳에는 감정, 사랑, 정이 들어있다. (감정적인 장소)
- 생각 / 노에마 :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 (이성적인 장소)
- 우리의 염려는 이 두 장소에서 일어난다.

기 도 :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

간 구 :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 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

감사함 : 과거와 현재에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감사할 수 있음.

기도의 결과로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은?

-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
- 지키다 / 군사용어 :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모습
- 하나님의 평강과 ‘걱정’이라는 적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겹겹이 둘러싸 지켜주는 것!

“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55:8~9)

4장 8~9절 행함과 평강의 하나님

★ 성도들이 힘써야 할 신앙의 미덕 8가지

- | | |
|---------------|--|
| 1. 참된 것들 | |
| 2. 경건한 것들 | |
| 3. 옳은 것들 | 7. 덕 : 도덕적으로 뛰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신앙적 탁월성) |
| 4. 정결한 것들 | 8. 기림(에파이노스) : 도덕적으로 높은 칭찬받는 것 |
| 5. 사랑받을 만한 것들 | |
| 6. 칭찬받을 만한 것들 | |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라는 표현으로 **복수형태**

“무슨~있든지”라는 표현으로
단수형태

- “생각하라”는 말은 8가지를 얻을 목적으로 깊이 묵상하라는 것!
- NIV에서는 “너희 마음에 머물게 하라(Let your mind dwell on)”고 번역.

바울이 생각하라고 한 8가지 덕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 바울의 핵심은 “행하라”이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이라는 결론이다.

“평강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관용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
마지막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4장 10~13절 자족을 배움

- 바울은 이제 그들이 자기에게 보낸 헌금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면서 자신의 재정 원칙을 밝힘.
- 11절부터 스토아 철학자들이 쓰는 표현들을 사용. 빌립보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활동 무대이기도 함.
그러니 바울의 표현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했을 것!
- 11절 : 자신이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불평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 자족 :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하는 것
- 12절 : 그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즉 배부른 상황이든지 배고픈 상황이든지, 풍부함이든지, 결핍이든지, 자족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놀라운 비결을 배웠다고 말함.
- 비결을 배우다 : 헬라의 신비 종교들이 그 종교의 비밀을 터득했을 때 쓰는 표현
즉,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정말 어렵다는 것,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것에 대해서 비결을 터득해 냈음을 강조하고 있음.
- 13절 : 바울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 ‘내게 힘주시는 분 안에서’를 덧붙여 자기 힘으로 자족을 이루려는 스토아 철학자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에 힘입어 자족함을 분명히 한다.

4장 14~18절 함께 참여함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후원의 영적 의미 2가지”
- 17절 : “영적 유익을 위한 풍성한 열매”
- 18절 :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나의 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 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신다! >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채우신다는 의미이다.
- ②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 >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우신다.
- ③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을 따라 마음껏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빌립보서는 “은혜(1:2)”로 시작해서 “은혜(4:23)”로 끝을 맺는다!

본문읽기

개역개정

-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 (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 (3)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말성경

- (1)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이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 (2)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게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 (3) 그리고 나와 명예를 같이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의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달음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 (5)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 (7)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 (8)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 (9)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 (1) Therefore, my brothers, you whom I love and long for, my joy and crown, that is how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dear friends!
- (2) I plead with Euodia and I plead with Syntyche to agree with each other in the Lord.
- (3) Yes, and I ask you, loyal yokefellow, help these women who have contended at my side in the cause of the gospel, along with Clement and the rest of my fellow workers, whose names are in the book of life.
- (4)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 (5)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e Lord is near.
- (6)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 (7)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 (8) Finally, brothers,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admirable--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think about such things.
- (9) Whatever you have learned or received or heard from me, or seen in me--put it into practice.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메시지

(1-5)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권면합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대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트와 나, 그리고 다른 노련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메시지를 전하려고 힘쓴 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꼭 빠지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들 편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곧 도착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6-9) 마음을 줄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본문읽기

개역개정

-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 (15)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 (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 (17)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 (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 (20)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 (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 (22)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말성경

-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 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 (11) 내가 궁핍하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 (12)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 (13)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 (14)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 (15)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 (16)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 주었습니다.
- (17)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 (18)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 (19)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 (20)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 (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 (22)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 (10) I rejoice greatly in the Lord that at last you have renewed your concern for me. Indeed, you have been concerned, but you had no opportunity to show it.
- (11) I am not saying this because I am in need,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 (12)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 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 (13)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 (14) Yet it was good of you to share in my troubles.
- (15) Moreover, as you Philippians know, in the early days of your acquaintance with the gospel, when I set out from Macedonia, not one church shared with me in the matter of giving and receiving, except you only;
- (16) for even when I was in Thessalonica, you sent me aid again and again when I was in need.
- (17) Not that I am looking for a gift, but I am looking for what may be credited to your account.
- (18) I have received full payment and even more; I am amply supplied, now that I have received from Epaphroditus the gifts you sent. They are a fragrant offering, an acceptable sacrifice, pleasing to God.
- (19)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in Christ Jesus.
- (20) To our God and Father be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 (21) Greet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The brothers who are with me send greetings.
- (22) All the saints send you greetings, especially those who belong to Caesar's household.
- (23)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Amen.

메시지

(10-14)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 나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거나 나를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여러분이 나를 많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나와 함께해 준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15-23)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나도 잊지 않겠지만, 내가 처음 마케도니아를 떠나 담대히 메시지를 전하러 나아갈 때에, 이 일에 협력하여 도움을 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내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헌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관대한 행위에서 오는 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것은 제단에서 타올라 주위를 향기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흡족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며, 그분의 관대하심이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 중에 여러분의 관대함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이 충만하셔서, 영원토록 영광이 넘쳐나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우리의 벗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황제의 궁궐에서 일하는 믿는 이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안에 깊이깊이 받아들이고 생생히 경험하십시오.

1. 문단 나누기

(각 본문을 3회 이상 읽고 문단을 나누십시오. 이를 통해 파악한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서, 한두 절을 묵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2. 하나님 찾기

(하나님[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을 3회 이상 읽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정리하십시오. 이를 묵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3. 강조점 찾기

(반복·비슷·반대·대조·연결사·기타강조 등을 찾은 후 중심사상을 정리하십시오.)

4. 원리

(지금까지 본문을 이해한 결과,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십시오.)

5. 오늘의 사명

(말씀 적용하기)

6. 기도노트

(1) 나

(2) 가정

(3) 공동체

말씀훈련 Tip

- 문단 나누기

(1) 본문 구조와 문맥 파악을 위한 문단 나누기

성경을 깊이 볼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문단 본문의 흐름(문맥)과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다. 단어의 의미는 문장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문장은 문단과 문단으로 구성된 본문의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또한 본문의 문맥은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하나의 방향(중심사상)을 향해 일관성 있게 전개된다.

따라서 성경을 볼 때 바른 순서는 본문의 세밀한 부분(단어나 구 등)을 보기에 앞서 본문 전체의 문맥과 구조 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2) 본문 문단의 통일성, 일관성

성경은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 한 분의 작품이기에 본문은 통일성, 일관성을 갖고 있다. 문단 나누기는 본문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문단의 소제목은 논리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3) 문단 나누기 방식

- 본문은 대개 2~5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
- 각 문단에 소제목을 붙인다. 소제목은 본문의 문맥을 고려하여 문단을 가장 잘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제목은 해당 문단의 중심 단어 등을 이용해서 서술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좋다.
- 각 소제목들은 통일성을 가지고 상호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4) 본문의 전후 문맥

본문의 문맥을 이해하고자 할 때, 본문의 앞 뒤 본문을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앞 본문은 해당 본문에 대해 많은 정보를 준다. 앞의 사건이나 논리, 다양한 개념에 대한 정의, 저자의 우선적인 관심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강조된 사상이나 단어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5) 문단을 나눌 때 생각해 볼 사항

문단을 나누는 목적은 본문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없기에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문단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문단나누기를 통해서 본문을 많이, 자세히, 깊게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말씀훈련 Tip

- 하나님 찾기

하나님 찾기(예수님, 성령님)는 깊게 보고자 하는 성경 본문에서 계시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 정리하는 관찰 방법이다. 주로 삼위 하나님의 본성, 성품과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두 가지를 살피게 된다.

성경에서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주로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정의 내리는 부분과, 삼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계시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부분에 주목하여 정리하면 성경 본문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

(1) 왜 하나님 찾기를 하는가?

그것은 성경의 고유한 목적과 직결되어있다. 성경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계시이다. 이 두 가지 계시 내용은 성경을 깊이 볼 때 중심사상(Main Idea)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찾기’를 하면 그 본문의 핵심인 중심사상이나 중심사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하위사상(Sub Idea)을 알 수 있다. 성경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이기에, ‘하나님 찾기’는 성경 본문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 ‘하나님 찾기’ 방식

- ‘하나님 찾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삼위 하나님(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구분하여 각각의 본성과 성품, 그리고 행하신 일(사역) 등을 찾는다.
- 어떤 성경 본문에는 상당히 많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대개 한 본문 내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유사한 것들은 묶어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어떤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아도 숨은 의도를 찾을 수 있으면 더욱 좋다.

(3) ‘하나님 찾기’를 해석과 적용으로 연결하라.

‘하나님 찾기’를 한 결과는 어떤 형태겠는가? 아마도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에 대한 요약정리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약정리는 그 자체로 해석에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즉 “정리한 결과가 해석과 적용에 어떤 도움을 주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훈련 Tip

- 강조점 찾기

(1) 정의

본문의 전체 흐름과 내용, 본문구조 등을 파악한 후 본문의 강조점에 주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문의 강조점에 주목한다는 것은 저자가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2) 강조점 찾기

- 반복 혹은 비슷한 단어, 구, 문장 등 :

단어나 구, 혹은 문장 등이 반복될 때 본문이 강조된다. 문단 혹은 내용의 반복도 찾는다면 그것은 본문의 구조의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물론 초기엔 단어 등의 반복 정도만을 찾게 되지만, 익숙해지면 여러 반복이 보이고 다양한 해석적 자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비슷한 표현의 반복도 강조점 찾기의 대상이 된다.

- 반대 혹은 대조되는 단어, 구, 문장 등 :

단어나 구, 혹은 문장 등이 반대 혹은 대조될 때 본문이 강조된다.

- 기타 다양한 강조점들 :

일반적으로 글에서 저자가 사용하는 강조점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특정한 표현을 1회만 사용해도 강조가 될 수 있고, 연결사를 이용한 원인과 결과(인과관계), 혹은 일반적인 사상 제시 후 구체적인 내용으로 증명하는 등의 서술방식도 강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동사가 중요한데 동사는 행위를 지시하기 때문에 사상을 전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각 문장의 주동사를 찾아 표시하면서 저자가 무엇을 주로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다. 명령형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성경에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일 때가 많다.

(3) 강조점의 해석적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살펴볼 것인가?

- 우선 그 표현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 그 표현들이 상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 본문 전체 문맥 및 해석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말씀훈련 Tip

- 원리

(1) 정의

원리를 한자로 풀어쓰면 사물이 근거하여 성립하는 근본 법칙, 또는 기초가 되는 근거 또는 보편적 진리를 말하고 있다. 이를 성경해석에 적용해서 본다면 원리는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근거이고 나아가 보편적인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알면 성경과 개인의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2) 원리진술 방식

- 문단 나누기, 하나님 찾기, 강조점 찾기 등의 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원리진술의 단계로 넘어간다. 원리 진술은 앞에 부분의 대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작업을 통해서 이해한 결과,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원리 진술이다.**
즉 본문의 해석을 통해서 신자의 신앙과 삶에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원리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 원리 진술에 있어서 지나치게 부수적인 원리들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본문 전체의 중심 사상을 먼저 세우고, 부수적인 것들은 가능한 대로 중심 사상을 수식하는 것으로 배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주어진 본문은 문학적인 하나의 사상적 단위로 간주되어진다.
- 원리는 성경과 개인의 삶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되는데 원리는 결과인 동시에 묵상의 시작이기도 하다. 성경의 본문은 원리의 진술을 통해서 그 일차적 의미가 정리되고 구체화된다.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개인의 삶의 영역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이다.

- 오늘의 사명 (말씀적용)

(1) 정의

여기서의 사명이란 “내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깊게 본문을 살펴보았다면 그 말씀들을 “오늘의” 나의, 우리의, 교회의, 민족과 세계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2) 적용의 내용

- 원리의 다짐 : (본문에서 ~가 ~ 한 것처럼) 나도 / 우리도 ~ 해야 or 하지 말아야 한다.
- 위로와 축복 : (본문에서 ~를 사랑, 인도, 축복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 우리를 사랑, 인도, 축복하신다.
- 책망과 심판 : (본문에서 ~가 하나님의 책망, 심판을 받은 것처럼) 나도 / 우리도 ~하면 하나님의 책망, 심판을 받는다.

(3) 적용의 표현법

- 권면 : 나도 / 우리도 ~ 해야 or 하지 말아야겠다.
- 선포 : 나도 / 우리도 ~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 우리를 ~ 하실 것이다.